▶▶ 매일 INDEX

4면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연대와 협력 본격화

전주매일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음 5월 4일) 제25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3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북도 창업기관 협의회 출범식에 송하진 도지사,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창업 관련 혁신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본격 가동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북도 창업기관 협의회' 출범
경제활력화 · 일상성 회복 표방 24개 기관 역량결집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력화 및 일상성 회복을 표방,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 24개 관련 기관과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도가 송하진 도지사,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창업 관련 혁신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북도 창업기관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5년 간 혁신경제성장 핵심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술기반 신생 창업비율을 꾸준히 높여 전국 평균 1.03% 대비 1.09%로 다소 높지만 창업 후 질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분석, 도내 창업 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지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제로 ▲창업 거버넌스 구축 ▲투자 인프라 활성화 ▲도약·성장기 지원 확대 ▲창업성정 거점 구축이 도출되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창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는 창업 관련 지원기관의 정보교류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북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북 창업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24개 창업혁신기관은 이번 협의회 출범식에서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내 창업기업 발굴,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기관별 주요사업 연계 및 협력 ▲신규 창업정책,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협의회 참여 ▲창업 실태조사, 정책 참여를 위한 기관 및 보육·관리기업의 정보교류 ▲기타 협의회 등에서 도출된 세부 안건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창업기관 협의회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 창업 초기 판로 확대 및 성장단계 자금조달 애로 해소 지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외부 투자자 전북 유치 프로그램 등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23개 창업혁신 기관은 단계별로 ▲도내 창업분야 핵심 네트워크 구성 ▲협의회 안건 도출 관련 네트워킹 추진 ▲전략산업분야 및 혁신창업 활성화 정책 도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전북도 창업정책 실행방안 논의 및 협의를 추진, 각 기관별 창업지원 데이터 공동 DB화 및 홍보를 통해 창업자가 아이디어에서 투자까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스타트업이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창업기관 협의회가 우리 지역 혁신창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구심체가 되어 전북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이 상호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 힘 모을 때… 의심되면 '1339'로

국가예산 · 도정현안 해결
전북도, 정치권 공조 강화

지휘부 총출동 연일 총력전

전북도는 올해의 2020, 힘찬 발걸음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해 연일 주요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을 요청한 것에 이어,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취임 축하인사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전북 연고 국회의원 등에게 공공의대법 등 도정 주요현안, 국가예산 중점확보사업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이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익산 왕궁 정착농원 미 매입 잔여 현업축사의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새만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비' 200억 반영과, 우리나라 최초 25년간 개최되고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의 우수성을 국가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키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5억원 반영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가 총 출동하여 각 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 쟁점사업이 확보될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국가예산 공조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구축하기 위해 7월중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평가 '전국 최우수'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2018년 부터 2022년 까지의 각 지자체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종합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5개년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적 연차평가는 원예산업종합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평가는 전국 109개 광역,기초지자체와 8개 품목광역조직를 대상으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노력, 생산분야, 유통분야 3개 항목 7개 지표에 대한 목표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했다.

전북도는 이번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확대, 조직화 출하, 참여조직 참여도 등 3개 지표에서 높은 득점을 획득함으로써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산지유통 조직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전북도가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총 715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올해 선정된 조직 중 농업회사법인 농산(1위), 전주조공법인(2위) 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농산물 유통조직으로 우뚝 서게 됐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통적인 벼를 중심으로 한 농산시책평가 1등에 이은 원예작물 분야의 정부시책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전북도가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조직 육성 강화,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취급액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활기차게 펼쳐 농가의 수취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